쉐마,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

(신6:1~25)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과 신명기 6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쉐마,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쉐마,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4절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들어야 될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쉐마를 말할 때에는 이 본문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가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말씀 같지만 조금 따져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우리 속의 목마름과 간절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것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없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문제는 이 목마름이 굉장히 여러 종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느끼는 목마름은 돈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라지도 않고 재벌 되는 것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왕 사는 것 건강하고 씩씩하게 먹을 것도 다 먹고 갈 데도 다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또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이 간절한 목마름입니다. 결혼도 간절합니다. 목사님들에게는 부흥이 간절하고 아직도 상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상에 예배당을 갖게 되는 목마름,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성적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마름들 중에서 십자가는 그 어떤 것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안달이 난 사람에게 십자가는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자에게만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쉐마가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주어지는 죄 사함과 의로움은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아닙니다. 죄 사함과 의로움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에서 칭의(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오는 본문을 읽으며, 의로움을 얻는 것으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 와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룹에 뽑혀서 몇 개월간을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이게 목적입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몸이 깨끗해지고 내가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그룹에 오를 수 있도록 의로움을 받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뽑혀서 깨끗하게 몸 관리를 하게 되고 마음 관리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아닙니다. 죄 사함과 칭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어지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고,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 시즌1에 1,861개의 오늘의 번제 말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즌2도 벌써 229번째입니다. 합치면 2,090개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쉐마와 십자가 두 기둥 사이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전달되고 있음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오늘의 번제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쉐마와 십자가 사이에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들어있는 근본 메시지는 바로 쉐마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고 모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근본 취지를 성취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유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본래의 메시지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인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쉐마의 말씀을 성취하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기본 키이고 성경의 기본입니다. 이건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말씀을 안 드

린다고 해서 내 것으로만 남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힘을 쓰면, 십자가를 통해 쉐마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이 안중에 없게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뜻 안으로 다 넘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 의미 구조 안에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번번이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저처럼 쉐마와 십자가를 양손에 붙잡고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근본 취지에 맞는 설교가 단 한편도 나오지 않는 강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 본적도 없고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목사님 말씀을 교회에서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을 듣고 부르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쉐마와 십자가 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칭의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신앙을 바꿔놓아도 이상하게 혼자 끙끙대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쉐마와 십자가 사이에서 움직이는 말씀이 전달 될 경우에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확- 빨려 들어오는데 이들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에 목말라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민에게는 그 목마름이 있으므로 십자가 복음은 선민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십자가가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 삶이 다 잘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민이 아닌 사람들도 다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근본적으로 선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잃어버렸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본래 목자의 품 안에 있었던 양입니다.
전도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게 되고, 그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안 되면 선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민들이 듣게 되는 것인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죽음 뒤를 두려워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들어옵니다. 죄 사함 받고 칭의 받아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전도를

하니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교회가 희석되어서 선민성은 다 없어져버리고 맹물성만 남아서 세상과 똑같아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는다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찾고 그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지금 돈 벌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도 모자라고, 자식을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도 제대로 키울까 말까하는 상황이고,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도 할까 말까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상황인데 어느 천 년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선민은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에서 '유일한'이 어디 걸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에 걸리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 부을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대 강령입니다. 이 한 마디에 다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 쉐마는 어느 정도로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까요?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흘려보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9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루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쉐마의 말씀만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숨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사실 지금도 누구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수성가한 사업가는 그 사업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일구어 낸 것입니다. 돈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자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막 낳은 엄마의 마음과 뜻과 힘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남편에 대한 내조조차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남편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기 위

함입니다. 유일한 하나의 대상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을 때에 모든 나머지 관계들은 그것에 종속되게 되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해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굳이 구분한다면 마음은 비어있는데 '마음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채운다.'고 하는 말을 의식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마음을 채우면 거기서 만족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깁니다. 어느 곳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인가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만 조금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자녀가 잘 크면 기쁠 수 있고 건강이 기적적으로 나으면 기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이게 다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어떨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내가 부양해야 하는 가정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게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으라는 것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찌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지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회사와의 관계에 서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회사 사이에 내가 서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서있다면 나는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서있게 됩니다. 나라에 대한 관계에 서있다면 뉴스에서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내 마음에 관심이 된다면 반드시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상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몸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실존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 것들 사이에 서있는 모든 순간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이 죽고, 뜻이 죽고, 힘이 죽으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이 쉐마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첫 단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자식 앞에 서있다면 자

식과 하나님 사이에 서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죽고, 자식을 향한 뜻이 죽고, 자식을 향한 내 힘이 죽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이 쏟아 질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이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죽고 뜻이 죽고 힘이 죽을 때가 많아요. 좌절해서 죽을 때도 있고, 절망해서 죽을 때도 있고, 체념해서 죽기도 하고 게을러서 죽기도 합니다. 게을러서 뭘 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고 뜻을 품지 않고 힘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방종교인 불교의 수련과정에서도 마음이 죽고 뜻이 죽고 힘이 죽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마음과 뜻과 힘이 죽는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정에 대한 관계에 서있다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므로, 가정을 향하던 내 마음과 뜻과 힘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은 아니지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주님과 연합해서 반드시 주님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그 때 마음도 뜻도 힘도 죽었던 내 인격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음과 뜻과 힘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다 돈 벌기에 쓰고 있는데 뜻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뜻은 다 자녀로 가고 있는데 힘은 다 하나님께 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강조하는 것으로 인격의 어느 구석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쏟으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라도 다 하나님께로 쏟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마주 대하고 있는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있다는 우리의 실존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인 쉐마의 성취가 가능해집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지요? 이 세상을 향하여 지불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마음을 쓸 여분이 없는 마음 가난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인색쟁이, 뜻의 궁핍쟁이, 힘의 궁핍쟁이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쉐마 실행 2단계는 어떤 단계냐?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를 너의 소유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갖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의 구조를 나를 갖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너의 마음엔 원래 나를 가져야 마음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쉐마가 성취되는 두 번째 단계는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내 마음을 계속 스트리밍 동영상처럼 드리므로 성취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계속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쉐마 실행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단계에서 완전히 만족과 기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땅에서는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야 되고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상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단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 마음을 드리면 반드시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3단계에서는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대신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힘 대신에 하나님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게 하시는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내려오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뜻이 죽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내 힘이 죽은 곳에 하나님의 힘이 내려오려면(착륙하려면) 공항이 있어야 하고 착륙지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몸이 살아있게 되는 나머지 생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충실히 선행되어야 가능한 얘깁니다. 하늘에서의 평강이 마음에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착륙지점으로 이 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힘을 따라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쏟아 붓던 일들이 있잖아요? 10~11절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쏟아 붓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그냥 다 필요한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마음 쓰고 뜻을 품고 힘을 다해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선 서클을 다 기억하시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하나의 서클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의 동선, 주의 서클 안에서 십계명도 이루어지고 쉐마도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올라타면 주님이 움직이신 이 서클이 계속 움직여지면서 우리에게 쉐마를 성취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성취하게 하시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하시면서 복지를 주시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께 마음을 끊임없이 드림으로 온전히 복음의 복음 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